

광양매화축제, 3월 13일 개막... 열흘간 화려한 대장정

광양시, 미디어아트·전통예술·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문화관광축제 운영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봄 축제인 제 25회 광양매화축제가 오는 3월 13일 개막해, 광양매화마을 일원에서 열흘간 열린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광양매화축제는 4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며,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된 광양매화마을에서 개최돼 전국 관광객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광양시는 2월 4일 관광협업센터에서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축제 개최 일정과 세부 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매화, 사계절 꺼지지 않는 빛 속에서 피어나다'를 주제로, '빛으로 수놓은 매화, 매화로 물든 봄'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디어아트·전통예술·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체류형 문화관광축제로 운영된다. 또한 광양만의 지역 특화 먹거리와 관광 연계 정책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며, 기후 변화 시

대에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매화문화관에서는 광양 출신 민화 작가 효천 엄재권 화백 특별전이 열리며, 이이남, 방우송, 구남콜렉티브 등 국내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8인의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돼 전통과 현대, 미래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인다.

올해 축제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높인다. ▲한국창의예술교 연주회 ▲울산 김오천옹 추모제 ▲매돌이 굿즈샵 ▲황금매화·매실 GET 이벤트 등 기획행사와 함께 ▲스탬프 투어 ▲매화인생 사진관 ▲매화꽃 활터 ▲매실 하이볼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한다.

아울러 둔치주차장에서 출발하는 Fun Run과 금천계곡야영장에서 진행되는 2박 3일 사전예약 캠핑 프로그램 등 특별 체류형 콘텐츠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머



무르며 즐길 수 있는 축제 환경을 조성한다.

광양의 특화 먹거리도 함께 선보인다. 2024년 첫선을 보인 '매실담아 광양도시락'에 이은 시즌2 신메뉴 ▲불고기 담아 광양도시락 ▲김국 한상차림 ▲광양불고기김밥 ▲매실한우 광양버거 ▲숯불 토종닭꼬치 등 지역 특화 음식과 ▲

매돌이 캐릭터 솜사탕 등 디지털 메뉴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먹거리는 섬진마을 주민 12개소가 직접 참여해 메뉴를 사전 검토하고 가격과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를 구현하고, 지역 상생형 먹거리 운영을 통해 광양 특화 먹거리 브랜드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광양신문호 기자



진도군, '로컬100' 사업 선정 쾌거 생활인구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진도 토요민속여행, 윤림산방, 신비의 바닷길이 지난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사업에 선정됐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자원 100개를 선정해 대국민 홍보를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2기 로컬100은 지역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총 1,042개의 후보가 접수됐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100개의 지역 문화자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진도군의 문화자원 3개는 지역의 문화적 보존 가치를 넘어, 전국적인 경쟁력을 지닌 문화콘텐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진도 토요민속여행은 199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080회의 공연을 이어온 장수 문화프로그램으로, 진도의 무형유산과 전통문화를 꾸준히 소개해 온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다.

진도군은 '로컬100 선정'과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사업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를 증대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문화와 관광, 일상이 결합된 '지역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진도 토요민속여행을 비롯해 윤림산방 투표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100개의 지역 문화자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진도군의 문화자원 3개는 지역의 문화적 보존 가치를 넘어, 전국적인 경쟁력을 지닌 문화콘텐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전남 곡성군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4일, 청사 출입구 앞에서 '선물 안 주고 안 반기' 메시지를 내걸고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청사 LED 전광판에는 청렴 실천 문구가 송출됐고,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안내와 함께 명절 대비 복무 유의 사항을 공유하며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캠페인은 명절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 준수 홍보를 중심으로 공정한

곡성군, 설 명절 앞두고 청렴 현상부터 다졌다

선물 안 주고 안 반기 실천으로 청렴 공직문화 확산

직무 수행과 부당한 청탁 근절을 강조하며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특히 식사·선물 제공 기준,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설명하고 청사 내의 홍보 활동과 직원 대상 안내를 함께 진행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 확산에 힘썼다.

이 같은 꾸준한 청렴 실천 노력 속에서 곡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

곡성군, 설 명절 앞두고 청렴 현상부터 다졌다

선물 안 주고 안 반기 실천으로 청렴 공직문화 확산

도 평가에서 2024년 4등급에서 2025년 3등급으로 한 단계 개선됐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과 함께 설 명절 전·후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

할 예정이다.

복무 관리와 직무 태도를 집중 점검해 느슨해질 수 있는 조직 분위기를 바로잡고, 성실히 일하는 공직 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리겠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이 공직자 모두가 청렴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전남 함평군은 "지난 2일 농업기술센터 정보화교육장에서 농촌진흥공무원을 대상으로 'AI 업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고 농촌진흥공무원의 실무 문제 해결 능력과 AI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챗지피티(ChatGPT)

함평군 농기센터, 농촌진흥공무원 대상 AI 업무능력 향상 교육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대응... "역량 강화 기대"

▲제미니(Gemini) ▲그록(Grok) ▲클로드(Claude) 등 주요 생성형 AI 도구 활용법과 AI를 활용한 이미지·영상 제작 기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참여한 공무원들은 각 AI 도구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며 ▲문서 작성 ▲자료 분석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일상적인 업무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익

혔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AI 기술이 행정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촌진흥 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농업기술의 확산·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농업기술보급 일부 사업에 대해 신청 기간을 2월 1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 공고 대상은 4개 분야 15개 사업 41개소이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기관에서 연구·개발한 신기술을 농업 현장에 조기 보급해 새로운 농업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

영광군, 2026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연장

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능성 맥류 재배 단지 육성, ▲마른논 쉼터 조성, ▲기후변화 대응 채소류 안정 생산 시스템 구축, ▲무인방제 기반 아열

대 만감류 안정재배 기술 시범, ▲스마트(ICT) 양봉기술 활용 꿀벌 육성 시범 등이 포함돼 있다. 신청은 읍·면 농업인 상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시범사업 목

적에 부합하고 신기술 수용 능력이 높은 농업인이어야 한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연장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여건과 작목 특성을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으로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화순군,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2월 12일~13일 광덕문화광장... 군민 최대 30% 할인 혜택 제공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병오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2일과 13일 이틀간 광덕문화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화순팍 우수 임업업체 30개가 참여하며, 업체 자체 할인과 함께 군에서 화순팍 전 품목 20% 할인을 지원한다. 여기에 화순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최대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터 첫날인 12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오전 10시 개장 선언식을 시작으로 전통 민속놀이인 떡매치기 체험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해 덕

담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돼 명절 분위기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또한 '새해 소망나무' 이벤트를 운영해 방문객들이 새해 소망과 계획을 적어 나무에 걸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거래장터를 어린이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명절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한 농촌활력과정은 "물가 상승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군민들을 위해 이번 직거래장터를 마련했다"라며, "다양한 농·특산물과 직거래가 지역 농민과 군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냐...
기어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안...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